



志摩半島の 海女

写真 古谷千佳子

시마반도의 해녀
Ama of Shima Peninsula

志摩半島の 海女

写真 古谷千佳子

시마반도의 해녀

Ama of Shima Peninsula

海女とは、素潜りでアワビ、サザエや海藻をとる漁をする女性です。
海女は自然なる海を働き場に、海の環境を大切にしながら、
資源をとり尽くさない努力を 3 千年以上つづけてきました。

Ama are female breath-hold divers who gather abalone, sea urchin and seaweed.
As they work in the sea, *ama* treasure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ocean;
they have maintained a sustainable harvest of these resources for more than 3000 years.

“해녀”란 나잠수업으로 전복, 소라, 해조 등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해녀는 위대한 자연 바다를 일터로 삼아 바다의 환경을 소중히 하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3천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目次

Contents 차례

- 5 海女 潜る
Ama Diving 해녀 잠수해 들어간다
文 濱口ちづる
text Chizuru Hamaguchi 하마구치 치즈루
- 21 海女 漁場へ
Ama Going to Fishing Site 해녀 어장으로
文 古谷千佳子
text Chikako Furuya 후루야 치카코
- 43 海女 海藻をとる
Ama Gathering Seaweed 해녀 해조를 채취한다
文 小島孝夫
text Takao Kojima 고지마 타카오
- 57 海女 市場へ
Ama Heading to Market 해녀 어판장으로
- 65 海女 憩う
Ama Relaxing 해녀 휴식을 취한다
文 谷村志穂
text Shiho Tanimura 다니무라 시호
- 81 海女 陸で働く
Ama Working on Land 해녀 육지에서 일한다
文 川口祐二
text Yuji Kawaguchi 가와구치 유지
- 93 海女 海神に願う
Ama Praying to Sea Gods 해녀 해신께 기원한다
文 石原義剛
text Yoshikata Ishihara 이시하라 요시카타
- 108 「志摩半島の海女」
Ama of Shima Peninsula 시마반도의 해녀
文 石原義剛
text Yoshikata Ishihara 이시하라 요시카타
- 110 「志摩半島の海女の歴史」
History of *Ama* in Shima Peninsula 시마반도 해녀의 역사
文 塚本 明
text Akira Tsukamoto 츠카모토 아키라

海女 潜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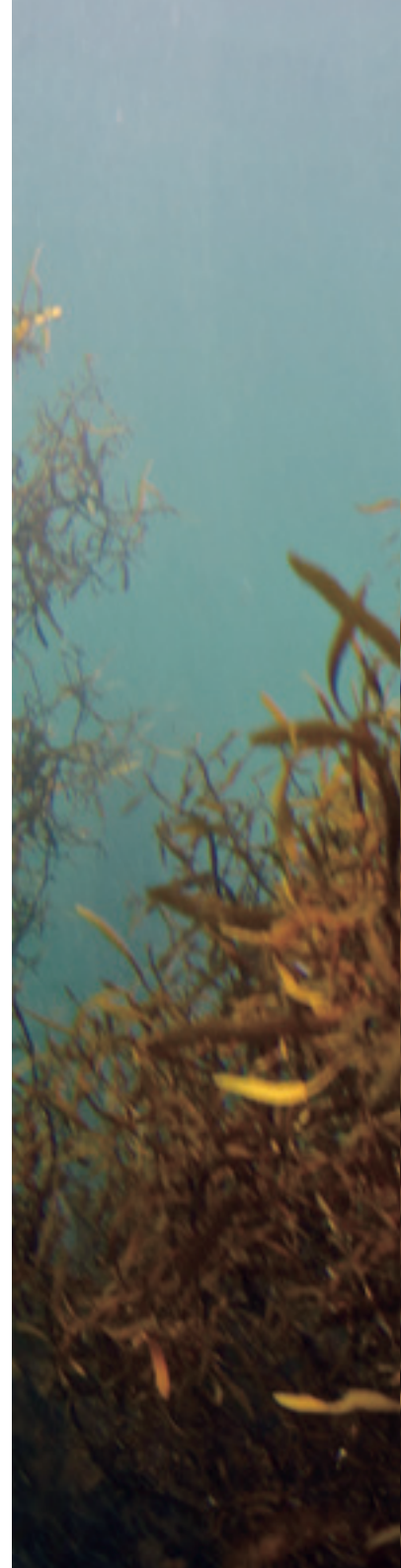
Ama Diving

해녀 잠수해 들어간다























漁がはじまると気持ちが高まる

濱口 ちづる

海女

●はじめて漁に出たころ

学校へあがる前から、海へ出てちゃぼちゃぼしとった。水着なんか買おてもえらん、シミーズにパンツで、兄や姉らが海へ連れて行ってくれた。ちょっと大きいなって、赤ベン取り言うて赤い石を海底へ取りに行くとかしとった。中学校の時にはもうアワビやサザエを獲とったよ。

海女らしいこと、はじめたのは子どもが生まれてちょっと経った頃やったか、毎日やないけど、子どもを見てくれる人がおる日とかに。23年前、30歳前後のことや。

海へ入るのが好きやった。母や叔母らが海へはいつとるの見とって自分も行きたい思ってた。仕事にする気はなかったけど、子どものころ獲った覚えがあるよって、やりたいなあ思ってた。子どもらにも食べさせられるし。やってるうち、こんなにようけ(たくさん)獲れるようになったら、パートにいつとるよりいいわと欲も出てくるようになってきたわ。獲れると嬉しいよって。

●その年のはじめ

海女漁がはじまるのは6月の下旬、漁協で神主さん呼んでお神酒を頂いて、洗米を頂いてご祈祷するんです。この時が、はじまるやなあ一番思う。一年間の安全祈願ということで、答志中の海女が勢ぞろいして船頭さんも皆集まって来るんで、この時は神聖な気持ちになります。

この儀式が済むと口が開きます。この時はうきうきしてきます。磯に入るのが楽しみという気持ちが湧いて来る。待ちに待ってた、実際にこれからアワビ獲れるでしょう。気持ちが高鳴る。わたしは水へ入る前に、八幡さん(神社)に向かって洗米を撒き、そして小さく両手を合わせて祈ります。わたしはメガネを嵌めて両手でしっかりと押さえ、外れませんようにという仕草をします。ベルトもしっかり締めた後で、もう一度確かめます。これでもう忘れものないなあ確かめるんです。

海への入り方も、わたしのやり方があります。わたしは静かに入ります。海

を騒がせんように、静かに。

●得て場がある

多く獲る人は、好きな場所をエテバ(得て場)というけど、アワビ獲れるええ場所を知とる。わたしらでも、ええ場所にあたると、ようけ(たくさん)獲れるわ。もちろん外れる時もある。波が荒かったからもうちょっと岩影の方へ行けばよかったとか、自分の漁場の選択ミスもある。今日は違うところ行ったらよかったなあと思うけど、うまくいい場所に当たった時はたくさん獲れるから、喜びも大きい。

海は、誰がどこで潜ってもいいし、先輩はそこへ行ってこいよ、と言うけど、実際にそこへ連れて行って教えてもらたことはない、(海底の)あそこがいい穴があるからというけど、実際に行ってみなければわからん。ある人がいつもようけ獲とる場所へわたしが行けるかとゆうと、よう辿りつかん。

●穴は怖い

あそこの穴はアワビいると、言われても穴へ入って帰りに出てこれんだらどうしようかと思うと怖い。岩の下って、入って行く時は気がつかんけど、微

妙に曲がっていたり、自分がぱっと見て入っていったのと、入った実際が違ってることがある。慣れた入る穴は、こう入ってこう出てくればいいと、体が覚えているので、怖くはないけど、はじめての穴は判らんから怖い。人に教えられて、はじめて穴へ入る時はイキ(とても)恐ろしいですよ。暗いでしょう。見えへんどうしよう。それでも行って穴を探って、穴に手をいれたらアワビがおる、これ獲る時間あるやろか、獲ろうか、もう一回来てみようかと、そうやって何回か繰り返して、今回は止めとこうかなと考える。命取られたったら終いやで。左手が届いたらすぐ獲れるのに、右手やと無理しないと結構キツイ、でも左手はとどかん、それを考えながら判断するんや。そんで一度獲れたとこはまた行くけど、獲れんだとこはどうしようかなと迷う。それでもここは嫌と思ったとこへはもう行かん。

呼吸は、普通なら早めに上ってくればええけど、穴へ入る前には出られるか考える。穴へ入る時は体を伸ばしているから身体は細いけど、出る時は体を縮めているから太いんよ。入るときはスーと入るけど、出るときは体が丸

くなるから、何かに引っかかってしまう。どこかに当たったり、はさまったりする。岩の角などが出ていると、引っかかって上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もう一つなんかあったら、命落とすなあとと思う。

●海に化かされる

一番怖いことは、水面がそこに見えてるのに、そこへ行きつかない、集中力を失くしてるんです。命綱が岩にどこか引っかかっていて、上れない時や。ウェットスーツを裂いたりしてる。浮き上がる時に、アワビがおるとこやもんで、目印にモノを置いてくるんやけど、どうしても獲りたい思うて、次に潜って行く時、それを見つけようとして、なぜか奇怪な行動に出るんです。ここに置いといたから、真下に潜らなあかんのに、冷静な判断を失っているんです。潮の流れも止まっているのに、全然違う所へ行ってしまう時がある。あとから考えると、海に化かされるというか。パニックになるんやと思う。そういう時が怖いと思う。

今は、海に逆らいません。潮のえらい(流れの早い)時に、逆らって海に入るとえらいんです。若い時には逆らって

もやったけど、力だけではだめ、潮の流れが止んだ時に、入るとずっと入れます。自然は逆らわなければやさしいんです。

I Get Very Excited by the Start of Fishing Season

Chizuru Hamaguchi

Ama

My First Dive

I started swimming in the sea before I went to school. My parents did not buy me a bathing suit so I swam in my underwear with my big brothers and sisters. When I became a little bigger, I played at gathering red rocks from the sea bottom. By middle school, I was already catching abalone.

I started working as a professional *ama* shortly after my children were born. I could only dive when I had someone who could watch my children. That was 23 years ago, when I was around 30 years old.

I always like to be in the sea. I did not want to work initially, but I could feed my children some abalone... If I could catch this much abalone, I thought this was much better than working as a part timer. I wanted to make more money as I kept working as an *ama*. A big catch made me happy.

Beginning of the Year

Ama fishing begins near the end of June each year. We pray at the fishery cooperative. I think, Now it is beginning! All Toushi Island *ama* gather to pray for a year of safe fishing. We become religious at this time. After this ceremony, fishing season begins. I get very excited about going into the sea. I can catch abalone now; this is what I have been waiting for.

Before I enter the sea, I throw washed rice grains toward the shrine, put my hands together and pray. Afterward, I put my mask on my face with both hands, fasten the belt on my waist, and check them again. I make sure I do not forget anything.

I have my way of entering the sea, too. I enter the water quietly, so as not to disturb the water.

Favorite Fishing Site

Ama skilled at catching abalone know the good sites very well. If I hit a good site, I can catch a lot, too. Sometimes I choose a bad site. Because the sea was rough, I should have gone to the other side of the rocks. However, I made the wrong choice. I sometimes think I should have gone to a different place today. I regret the site I chose, but when I choose a good site, I catch a lot. This makes me very happy.

Anyone can dive at any site in the sea. A senior *ama* told me to go to a good fishing site, but she never took me there. Another said there was a good hole in the sea bottom, but you would not know until you actually see it. If you ask me if I can ever go to that site, where the good hunter goes, it is out of the question.

Fear of the Cave

Although other *ama* tell me there are abalone in a certain cave, I am afraid to go inside. I am afraid that I will not be able to come out. Going inside a cave is tricky. There is a curve you may not notice when you enter. It is not what it appears. I do not mind a familiar cave because my body knows how to get in and get out, whereas a cave where I have never been inside is scary and dark. I cannot see. What should I do? But I went and looked for this cave. I placed my hand inside and abalone were there. I think about catching them, but I do not have enough air. I think about going down there, but I hesitate. I repeat this thought many times and decide not to do it this time. I do not lose my life. I go back to a site where I already have caught abalone, but I hesitate going to a site where I was unsuccessful in the past. If I do not like a site, I never return.

I can simply come up for air from a regular diving site, but before

I enter a cave, I need to make sure I can get out. When I enter a cave, my body is stretched and thin, but when I come out, my body is crunched and round. It is easy to enter, but hard to get out because my body is round and can be easily caught. I may get stuck to something or bump into something. If I get caught on the edge of a rock, I may not be able to come up. I may lose my life if I have one more incident.

Bewitched by the Sea

My scariest moment was when I lost my concentration. I could see the surface, but I could not get there. I got stuck on a rock and could not come up. Sometimes I tear my wetsuit. As I come up, I see an abalone and drop my marker. When I go down to find it, I make a strange motion. I know I left the marker right below me, so I need to dive down in a straight line, but I lose my calm and become disoriented. Sometimes I swim to the wrong place, although there is no current. After I look back, I feel bewitched by the sea and I panic. I scare myself when that happens.

I no longer struggle against the sea. If you enter the sea when the current is strong, it is hard. When I was young, I would go in even if the current was strong. If I enter the sea when the current stops, I can enter the sea easily. The sea is gentle, if you do not go against it.

물질이 시작되면 신이난다

하마구치 치즈루

아마

● 처음으로 물질을 나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바다가 풍덩대고 놀곤 했다. 수영복 따구 사 줄리 없꼬 런닝구에 뺨스 바람에 오빠나 언니들이 바다에 데려가줬다. 쪼매 커서 아카벤도리라고 바다 밑바닥에 둔 빨간 돌멩이를 좇어오는 놀이를 했었다. 중학교 땐 이미 전복이나 소라를 잡았다 아이가.

해녀다운 일은 아 낱고 쪼매 지나서부터 했지 아마. 매일은 아이고, 아봐 줄 사람 있을 때만, 23년 전, 서른살쯤 됐을 때다.

바다에 들어가는 기 억수로 좋았다. 엄마나 이모들이 물질하러 가는 거 보고 내도 가고 싶었다 아이가. 생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렸을 적 잡았던 기억이 나서 물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기다. 아들한테 먹여 줄 수도 있꼬. 물질하다 보니 억수로 잡으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조타카이 욕심이 생겼다. 잡으면 신나서 그러지.

● 그 해의 작업시작 때

해녀의 작업기가 시작되는 건 6월 하순, 어협에 신주님(신사를 맡는 신관) 불러 신주(술) 따라 놓고, 선미(신께 바치는 공물) 바치고 기도한다. 이 때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 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도시섬의 해녀가 모두 모여 선장님들도 다 오셔서, 이 때는 모두 신성한 마음이 된다.

이 제를 올리고 나서 그 해의 첫물질이 시작된다. 이 때는 마음이 들떠온다카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신나서 저절로 흥이 난다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때부터 전복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욱사게 조타. 나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하치만 신사에 가서 선미(공물) 뿌리고, 작은 손을 마주대고 기도한다. 물안경 끼고 양손으로 꼭 누르면서, 빠져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 주십사카고 빈데이. 벨트도 꼭 매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제 준비완료구나 카고.

바다에 입수할 때 내 나름의 방식

이 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간다. 바다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 자신있는 어장이 있다

많이 채취하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에테바(자신있는 채취 장소)라 카고 전복이 욱사게 잡히는 텔 알고 있다. 우리도 좋은 장소 만나면 억수로 잡는다. 물론 잘 안될 때도 있다. 물결이 심하게 거칠 땐 쪼매 바위쪽으로 가면 좋았다카이, 어장 선택할 때 미스도 한다. 오늘은 탄데로 가면 좋았겠다카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좋은 장소 만나면 억수로 잡히니까 기분도 억수로 조타.

바다는, 누가, 어디서 들어가도 꽤 안타. 선배는 저기 갔다온나카고 말하지만 실제로 데려가 준 적은 없다. 저기에 좋은 데 있다카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 봐야 안데이. 어떤 사람이 억수로 잡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겠나? 나는 도착 못한다.

● 구멍은 무섭다

저 구멍(해저의 작은 동굴)에는 전복이 있다카고 말해도, 구멍에 들어갔다 못나오면 우야꼬 생각하면 무섭다. 바위 밑에 들어갈 때는 모르는

데 쪼매 곱어 있다거나, 순간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를 때가 있다. 평소 때부터 익숙한 곳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되제카고 몸이 저절로 기억해서 무섭지 안타. 처음 들어가는 구멍은 무섭다. 남이 갈차 준 구멍에 처음으로 들어갈 땐 억수로 무섭다 아이가. 어둡제? 안 보이면 우짜노? 그라도 거기 찾아가서 손 넣어 보면 저기에 전복이 있다. 이거 잡을 만큼 시간 있나? 잡을까? 다시 올까? 카고 몇번이나 반복하다가, 지금은 관두자꼬 생각한다. 목숨 끊기면 끝이라 아이가. 왼손이 닿으면 잡힐 것 같꼬마, 오른손은 무리하면 억수로 힘들 것 같꼬 왼손은 안 닿고, 그리 생각타 판단한다. 그라고 한번 잡은 데는 또 가지마는 안 잡힌 데는 어쩔까 고민한다. 그라도 싫다고 느낀 데는 다신 안 간다.

호흡은 보통 빨리 나오면 되지만, 구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올 수 있나카고 생각한다. 구멍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쭉 펴서 날찔하지만 나올 때는 몸을 우구리니까 뚱뚱해진 다카이. 들어갈 때는 주욱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몸이 둥글어져서 뭔가

걸려 못 나올 때도 있다. 아이가. 뭔 일이 하나 더 겹치면 죽아뿐다.

●바다에 속아뿐다

제일 무서운 건 수면이 저기 보이는데 거기에 닿지 않는 기다. 집중력이 떨어진 기다. 생명줄(몸에 묶어 놓은 밧줄)이 바위 어딘가에 걸려 못 올라갈 때다. 잠수복이 찢어지기도 한다. 수면에 올라갈 때는 전복이 있는 곳이라 표식을 해놓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고 싶어서, 다시 잠수했을 때 찾기 쉽게,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뿐다. 여기 뒀으니까 바로 밑으로 잠수해야 카는데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기다. 파도가 잠잠한데 전혀 판데로 가빠릴 때가 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바다한테 속았다고나 할까, 패닉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랄 때가 무섭다. 아이가.

이제는 바다에 거역하지 않는다. 물결이 거칠 때는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큰일 당한다. 쉼있을 땐 그만 거 상관 않고 일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힘만으론 안된다. 카이. 파도가 잠잠해지면 간단히 들어갈 수 있다. 자연은 거역하지 않으면 온화하고 다정하다.